



<잔세스칸스, 풍차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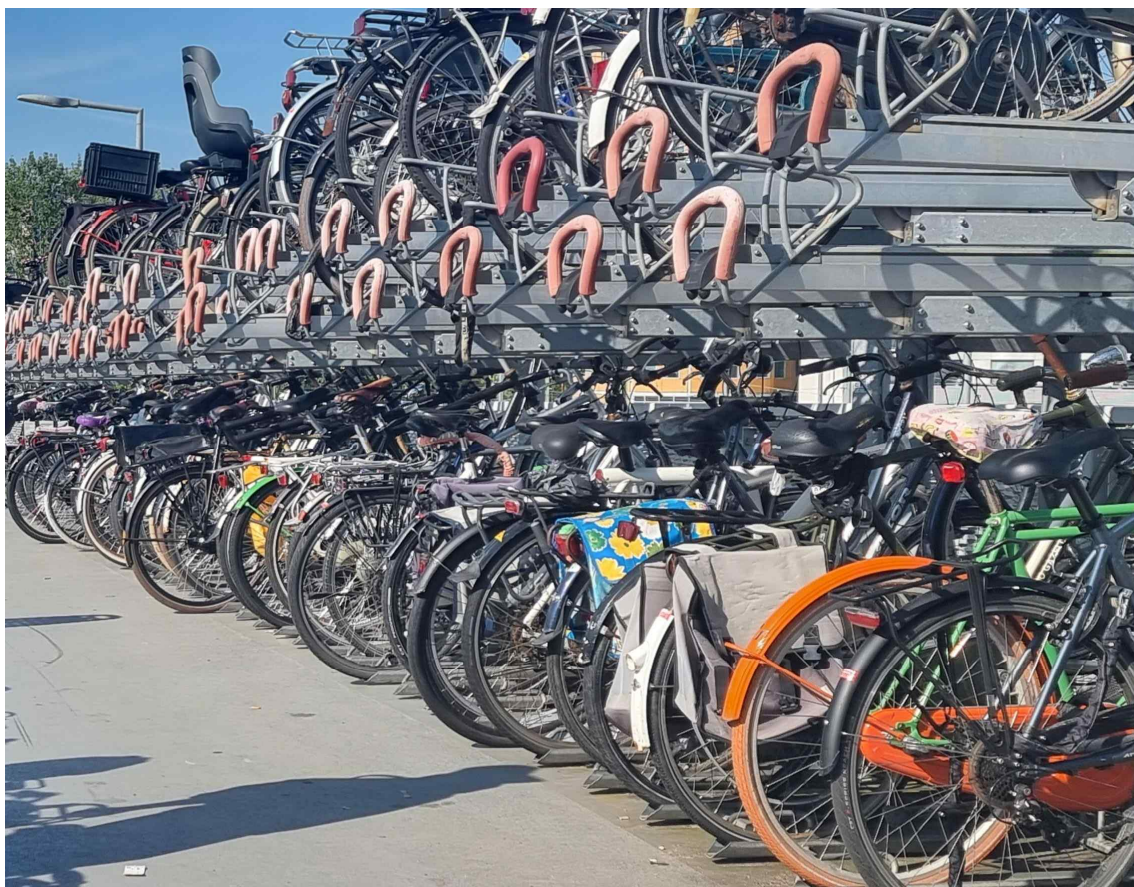
강변을 따라 쪽 늘어서 있는 풍차와, 전통 가옥들, 마을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운하가 한 폭의 목가적인 풍경이다. 그곳은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잔세스(Zaanes Schans)는 ‘잔(Zaan)강의 보루’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16~17세기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군주국 군대의 공격을 대비하여 잔 강 주변에 요새를 건설한 데서 유래한다. 아직도 7~8개의 풍차가 강 주위를 둘러서서形形色색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잔세스칸스, 풍차마을>

오후 두세 시경 우리가 드디어 풍차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자전거 행렬이 끝이 없을 정도로 밀려왔다. 자전거를 탄 채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데이트도 하는 모습이 너무 정겹게 보였다. 네덜란드인은 자전거를 많이 타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지형이 평탄해서 달리기 쉽고 전용도로나 지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용이하다고 들었다.



<역 주변에 쌓아놓은 자전거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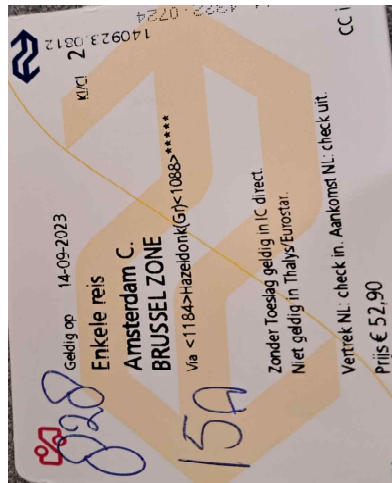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남성은 말할 것 없고 정장을 입은 여성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흔하게 보인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 질도 상쾌하다. 어디를 가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전거 주차장에 쌓아놓은 엄청난 자전거 자체가 예술이었다. 어마어마한 높이로 쌓아놓은 자전거들을 보고, 이게 다 자동차라고 상상만해도 난 어지러웠다. 기름이나 매연 생각하기도 싫으니.

숙소로 돌아올 때면 거의 매일 밤 나는 기진맥진, 완전 번 아웃 상태다. 어느 날은 배가 고프데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자리로 들기도 했다. 가끔 떠나는 여행이 꼭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뤄내야기에 가는 건 아니라고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묶여있었던 마음과 몸을 한껏 풀어내 보고 싶었을 뿐!

오랫동안 마음의 평안이 부재한 걸까? 도통 기쁨이나 감사가 사라지고 매사 짜증과 우울감이 나를 휩싸는 듯, 답답하고 지리멸렬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발견 -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듯, 주어진 생활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자 죄악이라는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한 채 여러 날, 나만의 고독한 신열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테마는 없다. 그냥 발걸음 옮겨지는 대로 -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 따라 걷기로 했다. 유치하게 이름을 꼭 붙인다면 코로나를 벗어난 유럽의 민낯과 함께 그곳에 존재하는 실망(?) 관광지 3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인데 이번엔 패스다. 다음으론 벨기에 브뤼셀의 오쥘 누는 소년상과 덴마크 해변가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이다. 해서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가는 기차를, 우리는 다음날 타기로 예약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브뤼셀 중앙역가는 기차표>

여기 기차 시스템은 진짜 편리하다. 우리로 말하는 보통 몇 시 몇 분 기차로 그걸 놓치면 기차표는 무효가 되고 천상 다음 기차로 변경하거나 다시, 예매를 해야 하는데 - 그곳은 그게 아니다. 물론 하나를 보고 일반화 시킬 순 없지만 - 기차표만 있으면 그 티켓에 준하는 기차를, 본인 시간에 맞춰 형편대로 타고 내리면 된다. 난 그런 교통 시스템이 일단 편해서 마음에 들었다.

지도상으론 네덜란드와 붙어 있지만 벨기에 브뤼셀의 느낌은 또 달랐다. 뭐랄까? 도시 전체에서 고풍스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아무튼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달라 보였다. 장엄하며 오래된 석조건물들과, 우아한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 덕에 거리가 마치 고성 같이 느껴지며 나아가 기품과 세련미까지 돋보였다.



<브뤼셀 오줌 누는 소년상>

오줌을 누는 소년을 형상화한 작은 동상 분수는 브뤼셀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다. 60센티의 그 꼬마를 보려고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지도를 펼쳤는데 도대체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아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런... 그 녀석도 모르면서 엉뚱한 곳으로 손가락질을. 으으윽!

엄청해맸다. 그 땅꼬마 찾느라, 드디어 발가락 물집이 터졌다. 알고 보니 1619년 제작되어 육백 살이 넘는 브뤼셀의 어르신이란! 헤매며 묻는 나에게

어떤 통통한 남자 왈, ‘오, 빅-보-이?’ 라고 알려준다.

국경일이나 기념일 혹은 지역행사가 있는 날이면 소년은 별거벗은 몸을 감추고 그날의 콘셉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다는데, 우리가 간 날 어느 행사가 있었는지 - 오줌싸개 소년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잔뜩 멧을 부렸다. 혹시 한국의 아담한 할매들이 온다고 해서? 아무튼 사방천지에서 보내주는 옷이 너무 많아 엄청난 멧쟁이라고 들었다.



<브뤼셀,그랑플라스(Grand Place)

에 있는 시청사 전경>

브뤼셀 시청사 건물이 있는 그랜드 플레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다.’ 라고 빅톨위고가 일찍이 말했다. 온 나라 관광객들에게 포위당한 시청사 광장은 그야말로 인종백화점 같다. 와플을 사 들고 광장 계단에 앉아 우걱우걱 뜯어먹고 있는데 어느 거지 노인이 다가와 손을 내민다.

시청사 역시 그랜드 플레이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1402 ~ 1455년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당시 브라반트 공작의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게 특징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랜드 플레이스를 대표하는 건물이자 브뤼셀 시청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 특히 1449년에 건조된 96미터 높이의 종탑이 인상

적이다

브뤼셀 중앙역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없어 한참 고생했다. 그곳에서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 와야 하는데 어느 기차를 어디에서 타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영어는 애매하고..., 할 수 없이 암스테르담 중앙역으로 간다는 중국인 청년 3명을 이리저리 졸졸 따라오는데 자존심이 쪼옴...



<알크마르 치즈 시장>

햇반을 뜨거운 물에 데워, 볶은 고추장에 비벼 먹는데 맛이 기가 막힌다. 고추장과 김치는 한국인의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다, 보약!

오늘은 알크마르 치즈 시장 가는 날, 네덜란드 알크마르 치즈 시장은 매년 4~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장이 열린다. 해서 우리는 금요일이 되기를 기다려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알크마르를 찾아 떠났다.

개인적으로 나는 젊은 날부터 치즈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지금도 각종 볶음밥엔 반드시 치즈를 넣는다. 그래서인지, 뼈 건강은 아직까지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나는 그걸 치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알크마르 치즈 시장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치즈 중개인들이 속이 빈 막대를 꽂아 치즈 샘플을 추출해 냄새를 맡는다.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벼 감별사 같은 포스다.